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민원상황실 가동

민원 통합관리·유관기관 협력...안전한 섬박람회 총력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종합민원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종합민원상황실은 국민신문고, 여수시 콜센터,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여러 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을 한 곳으로 통합해 접수 즉시 현장 기동 점검 확인과 조치, 민원 답변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통합 민원 컨트롤 타워'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재택 당직 체제를 유지하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사실상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췄다.

■ 온라인 단체 채팅방 '모바일 민원처리 핫라인'으로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종합민원상황실의 핵심은 여수시

21개 부서, 유관기관 19개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모바일 민원처리 핫라인'이다.

국민신문고, 여수시 콜센터, 현장 접수 등 섬박람회 관련 모든 민원은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며, 담당 부서는 확인 즉시 답글로 조치 계획을 알리고, 조치가 끝나면 같은 글 아래 답글로 결과를 등록한다.

별도 시스템에 이중 입력할 필요 없이 하나의 채널에서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공유하는 방식이다.

민원은 ▲행사장 내부(전시·공연 운영, 편의시설 불편 등) ▲행사장 외부(숙박·음식점 바가지요금, 교통 불편 등) ▲유관기관 협조(경찰·소방·해경 협조가 필요한 안전사고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화재나 해상 추락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 조치, 후 통보' 원칙에

따라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한다.

■ 접수 후 즉시 현장점검...민원인에게는 문자로 결과 안내

시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인 '48시간 내 현장점검'을 종합민원상황실에도 적용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확인 메시지를 등록하고, 즉시 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무부서와 관할 읍·면·동에서는 현장점검과 조치에 집중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은 민원인에게 문자·유선으로 처리결과와 안내를 전달해 업무 효율성과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매일 폐장 후 접수 건수와 민원 채널·유형·구역별 분포, 처리 완료율 등을 분석해 다수 민원 발생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민원 예방에 주력하는 등 데이터 기반 대응을 병행한다.

/이유빈 기자



서영학 시장이 지난 29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 및 토지개발사업 완료된 1,068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필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적정성·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해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결정·공시에 앞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민원지적과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의견 접수 후 재조사·심의를 거쳐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지가조사팀(☎061-797-27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9월에도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곡성군이 9월에도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군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마을로 찾아가는 유랑음악다방과 1960년대 고전영화 공동체상영, 어른과 가족을 위한 숲 캠프, 지역 생산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9월 2일에는 고달리마을 당산나무 앞에서 유랑음악다방 「나의 살던 고향은」이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거점시설을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70대 이상 노년층을 비롯한 주민들이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며 추억과 그리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변사극 공연과 아코디언 연주, 가수와 함께 부르는 추억의 옛 노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음악과 이야기를 매개로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9월 16일에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공동체상영 60년대 흑백영화 걸작선 「만선」이 상영된다.

이번 상영은 한국영화의 황금기로 불리는 1960년대 대표 문예영화를 통해 당시의 정서와 감성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서 한예중 5박6일 레지던시캠프 개최, 문화예술 교류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구례군에 머물며 주민들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는 레지던시캠프를 진행했다.

구례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37명이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지역에서 레지던시캠프를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모두 9개 팀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팀별 계획에 따라 합창단을 위한 보컬레슨, 산수유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산수유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주민 자화상 그리기, 국악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했다.

구례군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2년 9월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한예중 학생들의 여

름방학에 맞춰 지역에 체류하며 예술활동을 펼치는 레지던시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캠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모두 29개 팀 108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9개 팀 37명이 캠프에 참여했다.

구례군은 레지던시캠프가 예술가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지역과 함께하는 경험을 제공해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에는 문화예술의 활력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이 지역을 알리는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레지던시캠프에 참여한 팀이 제작한 단편영화 '월남보살'은 제22회 미장센단편영화제 품행제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선섭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